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중고등부는 뉴욕/뉴저지 지역 교회들의 배구대회에 참가합니다.
  - 일시: 6/2 (토) 9am
  - 장소: Rockland State Park LOT #2
- Ambassadors Conference: DO NOT BE SILENT, FOR I AM WITH YOU (Acts 18:9-10)
  - 일시: 5/28(월) 12pm — 5/30(수) 7pm
  - 장소: Central Presbyterian Church of NY,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2018년 5월 안내: 전영자 권사  
 다음 주 기도: 김은영 집사 (시 139:1-6, 13-18)  
 이번 주 친교: 전교인  
 다음 주 친교: 윤정호 집사, 김민아 집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8년 표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Which is Christ in You)” (골1:27)

**주일예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예배를 여는 기도(Opening Prayer)-----인도자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시편(Psalm) 29편 ----- 김병규 형제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시편(Psalm) 95:1-7 -----인도자

설교(Sermon)----- “Let Us Worship Our Maker” ----- Edwin Kim 전도사

\*찬송(Hymn) ----- “이와 같은 때엔”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새로운 피조물 (사도행전 2:1-13)**

오늘 성령강림주일은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서게 된 본문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열매가 되신 초실절이 지나고 50일후 곡식추수를 완성하는 맥추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추수의 완성이 시작된 날입니다. 신학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구속에 이어 삼위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세번째 일로 설명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졌습니다. 창조 때 사람이 성령으로 살게 된 것처럼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새로운 인류로(엡 2:15; 고후 5:17) 지어졌습니다. 오순절은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시내산의 언약이 주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오순절에는 성령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었을 때 사람은 진흙덩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증인되는 사명을 감당케 하는 분도, 섬김에 열매가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겸손히 구하고 담대히 행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모든 족속과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이날 자기 언어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를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주어졌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알아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알아들 수 있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순절은 시내산 언약의 완성입니다. 처음부터 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교회에는 원래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하나되게 하고 소통이 되게 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말, 우리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은혜이지요. 그러나 진짜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때로 익숙치 않은 사람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고, 익숙치 않은 언어와 방식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 단기선교가 좋은 예입니다 - 우리의 연합과 사역과 예배의 주인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언어로 증거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은 로마에 돌아가 로마 말로 전도하고 교제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역전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탑을 쌓던 사람들의 언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징벌로 흩어졌습니다. 오순절에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교회로 모였다가 흩어져 각자의 직장 and 이웃과 가정에서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교회보다도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이웃과 직장에서 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같은 배경, 목적, 일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맘을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닿도록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교회에 임하셔서 각 족속의 말을 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사정과 심정을 아시고, 그들이 알아들도록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만나는 곳이 땅 끝이고, 우리가 그들과 같은 언어를 말하는 곳입니다.